

# 대댐회지

Korean National Committee on Large Dams





한국대댐회 LinkedIn



한국대댐회 카카오톡

한국대댐회 공식 SNS 채널을 구독하고  
유익한 소식과 ICOLD 2027 정보를 받아보세요.

## 대댐회지

### KNCOLD Magazine Vol.50

발행인	윤석대
기술위원회 위원장	이상호
사무국	박동순, 김명현, 양우리, 이아름
발행일	2026. 6
발행처	(사)한국대댐회
주소	34045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89번길 125 K-water 연구원 내 Tel. 042-870-7317 Fax. 042-870-7308 E-mail. admin@kncold.or.kr / Web. www.kncold.or.kr

디자인 김다현



9 773091 994008

ISSN 3091-9940

# Contents

발간사 이상호 | (사)한국대댐회 기술부회장

## PART 1 특집기사 - 에너지 전환 시대 댐의 새로운 가치: 양수발전과 수상태양광

에너지 전환 시대 양수발전의 가치와 미래전략 -수로터널 및 지하공간 기술을 중심으로-  
조계춘 교수 (KAIST | 前 터널지하공간학회 회장)

탄소중립 시대의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와 기존 댐 활용 양수발전의 역할  
가필순 부장 (한국수자원공사 신사업부)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중심 양수발전소 -친환경 댐건설로 완성하다-  
김광섭 실장 (한국수력원자력 양수건설처)

## PART 2 트렌드 기술기사

홍수·가뭄 위험 저감을 위한 저수지 운영의 발전과 기후변화 적응 과제  
이상호 교수 (부경대학교)

기후위기 시대 농업용 저수지 미래 가치와 다목적 활용 전략  
최경숙 교수 (경북대학교)

댐에서 호수로, 물 인프라의 지역가치 전환  
배영대 처장 | 도기봉 부장 | 장성필 차장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기획 | 수자원사업 | 수자원계획)

기후변화 고려 댐 안전성 강화사업 사례분석  
곽상신 부장 (한국수력원자력 수력처)

## PART 3 2026년 상반기 대댐회 주요활동

ICOLD 2026 과달라하라 연차회의 국제협력 성과와 2027 대전 연차회의를 향한 시사점  
박동순 사무국장 (한국대댐회)

ICOLD 2026 멕시코 과달라하라 연차회의, 댐 기술 동향  
임정열 소장 | 조성배 책임연구원 | 강경남 선임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물인프라안전연구소)  
장수형 소장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연구소)

ICOLD 2026 멕시코 연차회의 참관기 및 2027 대전 연차회의를 위한 벤치마킹 전략  
김명현 과장 (한국수자원공사)

회의개최

부록 한국대댐회 회원사



## 발간사 Preface

### “댐, 다시 쓰는 가치 —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의 갈림길에서”

존경하는 한국대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수자원·댐 분야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시는 산·학·연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대댐회 기술부회장 이상호입니다.

오늘날 댐이 마주한 두 개의 시대적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한가?”, “우리는 충분히 새로운가?” 유례없는 극한 호우와 길어진 가뭄, 그리고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전환의 물결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대댐회지』 제50호는 바로 이 두 질문에 대한 우리 댐 기술인들의 응답입니다. 창간 이후 50호를 맞이하는 이번 호는 단순한 숫자의 매듭이 아니라, 댐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하는 기록으로 남길 바라며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특집 기사 — “에너지 전환 시대, 댐의 새로운 가치”는 댐을 더 이상 ‘물을 가두는 구조물’에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양수발전의 미래 전략을 수로터널과 지하공간 기술의 관점에서 짚어보고, 탄소중립 시대 전력계통의 유연성을 댐 자산이 어떻게 떠받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댐의 수면 위로는 햇빛이, 댐의 아래로는 지하공간 기술이 만나는 자리 — 이 교차점에서 한국의 물 인프라가 어떤 새로운 가치를 발산할 수 있는지, 회원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대댐회지에는 트렌드 기술기사를 수록하였습니다. 신규 댐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 답은 결국 기존 인프라의 재발견에 있습니다. 홍수와 가뭄을 동시에 다스리는 저수지 운영의 진화, 농업용 저수지의 다목적화 전략, 댐을 ‘호수’로 재해석하는 물 인프라의 지역가치 전환, 노후화와 극한 기상에 맞서는 댐 안전성 강화사업 실제 사례 등이 그것입니다. 특히 댐을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닌, 지역사회에 문화적·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호수’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시도는,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조용히 일깨워 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올해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ICOLD 2026 연차회의의 국제협력 성과와 댐 기술동향을 정리하며, ICOLD 2027 대전 연차회의라는 다음 무대를 준비하는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2027년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대전 DCC에서 개최되는 ICOLD 2027 연차회의를 통해, 한국 댐 기술이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서는 그날까지, 한국대댐회는 학술 교류와 기술 개발의 구심점으로서 맡은 소임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한국대댐회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고 유익한 소식을 카카오톡 채널과 LinkedIn 계정을 통해 공유하고 있으니 채널 구독을 적극 권장 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집필진 여러분, 그리고 50호라는 의미 있는 매듭을 함께 묶어주신 사무국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 6월

(사)한국대댐회 기술부회장 **이상호**

